

# 박선호 차관, “도시재생 속도감 높여 피부에 외닿는 성과” 강조

## 10일 도시재생 뉴딜 간담회서 전향적 추진 통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 당부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10일(수) 서울 스퀘어에서 “도시재생 뉴딜 시·도 간담회”를 주재했다.
  - 이번 회의는 국토부가 17개 시·도의 부단체장과 ‘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 17개 시·도 중 세종시, 강원도, 충청도, 충남도, 전남도, 제주도 등 6개 시·도의 실적이 우수하여 ‘19년 하반기 신규사업 선정 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
  - \*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업의 총액예산 증액
  - 또한, 하반기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사업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시·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규사업 선정을 당부하는 한편, 시·도별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박 차관은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이 추진된 지 3년차가 되는 해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전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고, 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혜택과 별점 부여를 강화하여 시·도의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9. 7. 10.

국토교통부 대변인